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5월 21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	도시철도 건설본부	담당자	• 안전총괄담당 김병철 ☎451-2808 • 담당자 이종호 ☎451-2722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시민과 함께

도시철도7호선 부평구청역~석남역 구간 개통

- 석남연장선 5월 22일 운행 개시, 서울 강남까지 '1시간대' -

- 인천1호선 검단 연장, 청라연장선까지... 사통팔달 교통망 조성 -

도시철도7호선과 인천1·2호선을 잇는 석남연장선(부평구청역~석남역) 구간이 5월 22일 5시 28분 첫차부터 운행에 들어간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5월 21일 도시철도7호선 석남역 개통식 행사를 새로 건설한 산곡역과 석남역 두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.

개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, 신은호 시의회위원장,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을 포함해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, 인천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했다.

석남 연장선은 부평구청역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까지 4.165km 구간 선로와 석남역·산곡역 등 2개 정거장을 건설한 사업으로, 총사업비는 3,757억(국비 2,254억·시비 1,503억) 원이 투입됐다.

현 인천도시철도 1·2호선이 남북을 이어주는 인천시민의 발이었다면 석남연장선 개통은 인천도시철도와 서울도시철도를 동서로 이어냄으로써 인천과 서울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석남 연장선 개통에 따라 인천지하철 2호선 이용객도 석남역에서 환승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대에 갈 수 있어 인천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.

또한 석남연장선은 전국 최초로 티머니와 역무자동화설비 무상구축 협약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이고 운영 경비 절감 효과도 얻게 된다.

※ 역무자동화설비(AFC)는 교통카드단말기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고, 버스와의 환승도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

역사에는 장애인 유도블럭, 음성안내 유도기,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.

인천시는 이번 석남 연장선 개통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과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청라연장선 건설로 더욱 촘촘한 철도와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.

이러한 서울·수도권의 접근성 향상과 인천 내 교통 개선은 인천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향후 인구 유입과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박남춘 시장은 “그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, 안전한 개통을 위해 애

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” 며 “앞으로 공항철도를 잇는 청라연장선 연계로 인천도시철도와 서울도시철도, 공항철도를 아우르는 수도권 철도망을 구축하여 사통팔달 인천, 모두가 인천으로 모이고 다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천을 만들겠다” 라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only.webhard.co.kr)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